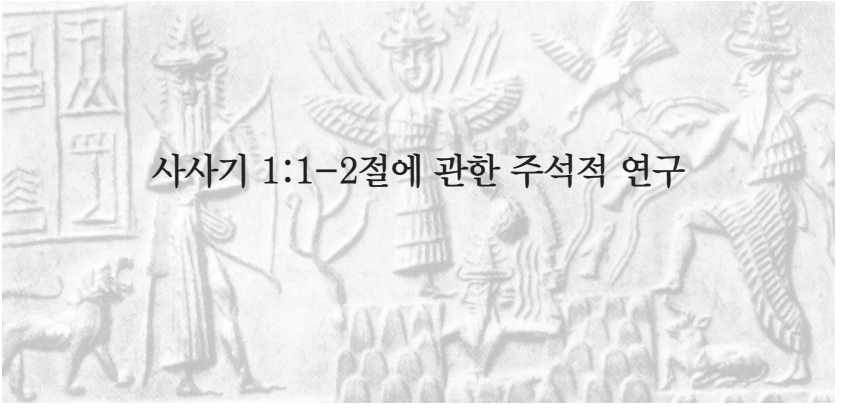
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80 (2021): 132-168
http://doi.org/10.24333/jkots.2021.27.2.132



사사기 1:1-2절에 관한 주석적 연구

강후구(서울장신대)

1. 서론

사사기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책이다.[1] 사사기는 한편으로 앞선 여호수아와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무엘서와 연관되어 있다. 시기상으로는 약속된 땅에 정착하여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를 다루며 정착된 장소인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징벌과 구원의 순환적 역사를 이루고 있다.[2]

---

1 최근의 연구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임봉대, "사사기 1:9-15에 나타난 남부 지파들의 정착과 약속의 땅 성취에 관한 고찰",「구약논단」75(2020), 38).

2 사사기 연구서로서 김의원/민영진.「사사기/룻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김회권.「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 · 사사기 · 룻기」(서울: 복있는 사람, 2007), 179-347; J. 클린턴 맥캔,「현대성서주석: 사사기」(오택현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원제 J. Clinton McCann, Judge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트렌트 버틀러,「사사기. WBC 주석」(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원제 Trent D. Burtler, *Judges,* Word Biblical Com-

www.kci.go.kr

사사기는 독특하게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두 개의 서두 부분(1:1-2:5; 2:6-3:6)과 두 개의 이야기(17:1-18:31, 19:1-21:25)를 담고 있는 결말 부분에는 사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부분들은 열두 사사에 관한 기술(3:7-16:31) 앞뒤에 각각 위치하여 사사기의 저술 또는 편집의 의도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사사기의 서두 부분 가운데 첫 두 구절을 다룬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사사기 전체에 관한 연구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사기 1장 1-2절에 관한 언어적, 문학적, 신학적 주석을 함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3] 사사기의 구조와 형성과정 속에서 본문을 분석하고

---

mentary Vol. 8.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8)., 브루스 K. 월커, 캐시 J. 프레드릭스,「창세기 주석」(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원제 Bruce K. Waltke/Cathi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 (Grandville, MI: Zondervan, 2001)., 빅터 P. 해밀턴,「역사서개론」(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5). 원제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윤동녕.「사사기 연구: 사사기의 사회학적 주석」(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 2016), J.A. Soggin, *Judges: A Commentary* (Phildelphia: The Westmninster Press. 1981), R.H. O`Connell,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Leiden: E.J. Brill, 1996), M.A. Sweeney, "Davidic Polemics in the Book of Judges." *Vetus Testamentum* 47(1997), 517-529, D.A. De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Cherryl A. Brown. "Judges", J.G. Harris, C.A. Brown, and M.S. Moore, *Joshua, Judges, Ruth.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0), 121-289, A.F. Campbell, *Joshua to Chronicles: An Introdu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4).

3 본문을 포함한 사사기 서두 부분 연구를 위해서 E. O' Doherty, "Literary problem of Judges 1:1-3:6" *Catholic Biblical Quarterly* 18/1(1956), 1-7, A.G. Auld, "Judges I and history: a reconsideration." *Vetus Testamentum* 25/2(1975), 261-285, E. Theodore Mullen, "Judges 1:1-36: The Deuteronomistic Reintroduction of the Book of Judges", *Havard Theological Review* 77/1(1984), 33-54, Marc. Z. Brettler, "Jud. 1,1-2,10: From Appendix to Prologue."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1(1989), 433-435, M. Weinfeld, "Judges 1:1-2:5: the Conques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House of Judah.", A.G. Auld(ed.), *Understanding poets and prophets: essays in honour of George Wishart Anderson* (Sheffield, 1993), 388-400, K.L. Younger, Jr. "Judges 1 in Its Near Eastern Literary Context", A.R. Millard, J.K. Hoffmeier, and A.D. Baker(ed.) *Faith, Tradition, History: Essays on Old Testament Historiography in Its Near Eastern Contex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4), 207-227, *Idem.,* "The Configuring of Judicial Preliminaries: Judges 1:1-2:5 and Its Dependence on Joshua"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68(1995) 75-92, K. Lawson Younger Jr., "The Configuring of Judicial Preliminaries: Judges 1:1-2:5 and Its Dependence on Joshua."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68(1995), 75-92), J.S. Stevenson, "Judah' s successes and failures in holy war: an exegesis of Judges 1:1-20", *Restoration Quarterly*

www.kci.go.kr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본문의 위치와 논쟁

본문은 사사기의 긴 서두 부분(1:1-3:6)의 첫 구절이다.[4]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는 두 구절(1:1, 2:8)에 의하여 일찍부터 두 부분으로 고찰되었고, 따라서 사사기는 두 개의 서두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환언하면, 사사기 편집자는 이 두 부분을 필요성에 맞게 병렬식으로 둠으로써 오늘의 모습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학자들은 두 개의 서두 부분이 어디에서 단락 구분이 되며, 두 개의 서두 부분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두 서두 부분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시도하였다.

서두 부분을 어디에서 구분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장 1절-2장 5절과 2장 6절-3장 6절로 나누는 의견(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Stevenson, Mullen, O' Doherty, McCann, Hamilton, 김회권 등)과 1장 1절-2장 10절과 2장 11절-3장 6절(Brettler)로 보는 의견이다.

브레틀러(M.Z. Brettler)는 사사기의 서두 부분이 여호수아 24장과 연결됨을 강조하고 이는 2장 5절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2장 6-9절까지의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28-31절까지의 내용의 재개(Wiederaufnahme)로 이해하

44/1(2002), 43-54, Hayyim Angel, "One book, two books: the Joshua-Judges continuum." *Jewish Bible Quarterly* 36/3(2008), 163-170, 최근 사사기 1장의 본문에 대한 연구로는 임봉대, 윗글, 37-59를 참조.

4 사사기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부분: 서두 부분(1:1-3:6), 본론 (3:7-16:31), 결말 부분(17:1-21:25)으로 나누어진다 (해밀턴, 윗글, 125, 버틀러, 윗글, 60, 김회권, 윗글, 186-187). 이 구조에 대한 세부사항과 관계는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진다 (아래 논의 참조).

www.kci.go.kr

여 그 범위를 넓혀 1장 1절-2장 10절까지를 한 단위로 보고 있다.[5]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시 말하고 있는 2장 6절부터의 내용은 1장 1절-2장 5절까지의 내용과 단절되고, 또한 이후에 기술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후 대적들에게 맡기심과 사사들을 세우신 역사 기술과 연관이 있기에 본문을 포함한 내용은 1장 1절-2장 5절까지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6]

두 개의 서두 부분이 형성된 이유에 대하여 학자들은 신명기적 역사서 가운데 하나로서 사사기를 접근하면서 여호수아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소긴(J.A. Soggin)은 여호수아의 죽음 기사 이후 2장 6절로 이어지는 것이 원래의 내용이었으며 1장 1절-2장 5절까지는 나중에 덧붙여진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7] 그 보다 앞서 마틴 노트(Martin Noth)는 일찍부터 사사기가 1장 1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2장 6절부터 시작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사기 1장 1절-2장 5절 부분에 신명기적 언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사기 2장 6절부터 사무엘상 12장 시기까지 신명기적 저자가 관련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8] 이 주장에 따르면 다루고 있는 본문은 사사기 본 내용 기술(2:6-16:31) 이후에 덧붙여진 본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두 부분(1:1-2:5)에 신명기적 언어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9]

---

5 Brettler, 윗글, 433-435.

6 1장 1절-2장 5절에서 올라가다(עלה/알라)동사가 강조되었다(1:1, 2, 22, 2:1. 맥캔, 윗글, 63 참조). 한편 학자들은 사사기 1장 1절-2장 5절을 다시 나누어 1:1-36과 2:1-5로 구분하고 이 두 본문 간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O'Doherty는 1:1-36의 내용은 역사적인 기술이며 2:1-5은 이후 편집자에 의한 신학적 기술로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2:1-5절의 내용이 먼저 기술된 이후 역사적 신빙성을 덧붙여 설명하기 위해 1:1-36절의 내용이 덧붙여 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O' Doherty, 윗글, 3-4.

7 Soggin, 윗글, 20. 카우프만은 사사기 1장이 드보라의 노래와 삼손 기사보다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Y. Kaufmann, *The Biblical Account of the Conquest of Canaan* (Jerusalem: Magness, 1985), 127-128). 그러나 소긴은 1장 1절-2장 5절 부분이 신명기 역사서에서 가장 나중에 덧붙여진 층으로 보고 있다. Soggin, 윗글, 4.

8 버틀러, 윗글, 72-73.

9 예를 들어 2:2의 וְלֹא־שְׁמַעְתֶּם בְּקֹלִי מַה־זֹּאת עָשִׂיתֶם(베로 서마으템 베콜리/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

www.kci.go.kr

이 부분이 사사기의 결말 부분(17-21장)과 연관되고 있고, 사사기의 결말 첫 번째 부분(17-18장)은 사사기의 본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에 본문이 신명기적 저자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래 논의 3.2).(2). 와 3.3). 참조).

학자들은 사사기의 두 개의 서두 부분을 여호수아서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신명기 역사서의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은 사사기 2장 6-9절로 이어진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와의 연결과 유사성을 보여 모세의 유언과 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서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수 23장)과 그의 죽음(삿 2:6-10) 이후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를 기술하면서(2:11-15) 사사들을 등장시킨다(2:16-23). 여호수아 23장이 사사기 2장 6절 이하로 이어지는 본문 형성 이후, 여호수아 24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사사기 1장 1절-2장 5절이 첨가되었다.[10] 이 견해에 따르면 본문은 두 개의 서두 부분 중에서 후차적으로 형성되었고, 아마도 사사기서 전체 형성과정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술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사기 1장의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과만 연결된 것이 아닌 여호수아 본문과 전반적으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기에[11] 위와 같은 연결은 작위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임 엔젤(Hayyim Angel)은 두 개의 서론을 인정하면서도 1장 1절-2장 5절이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2장 6절 이하로

니하였다-קוֹלִי(콜리/내 목소리) + 전치사 ב/ל(레/베) + שׁמע(샤마)동사+ 부정어)는 2:20, 6:10에서도 언급되는 신명기적 언어이다. O`Connell, 윗글, 19-28. 한편 바인펠트(M. Weinfeld)의 연구에 따르면 신명기적 표현법들은 사사기의 서두 부분(1:32; 2:2)뿐만 아니라, 끝 부분(17:6, 21:25)에도 등장하기에 신명기적 역사가들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더욱 수용하기 어렵다. M.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 (Oxford, 1972), 320-365.

10 E. O'Doherty, 윗글, 3-7.

11 사사기 서두 부분과 여호수아와의 관계성이 다음 본문에서 발견된다 (수 10:1-5= 삿 1:4-7; 수 15:63= 삿 1:8, 21; 수 15:13-19= 삿 1:10-15, 20; 수 13:2-3= 삿 1:18-19; 수 17:11-13= 삿 1:27-28; 수 16:10= 삿 1:29; 수 19:10-16= 삿 1:30; 수 19:24-31= 삿 1:31-32; 수 19:32-39= 삿 1:33; 수 19:41-48= 삿 1:34-35) (Younger Jr. 앞의 글, 각주 1번). 또한 버틀러, 윗글, 1082-1084,도표 부록 1.4. 사사기 1장과 여호수아서 비교를 보라.

www.kci.go.kr

이어지는 본문 사이에 놓여져 여호수아 시대의 황금기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사사 시대의 암흑기가 도래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12]

3. 사사기 1:1–2절 주석

1) 본문 비평

가장 오래된 번역본인 LXX역에서도 MT 본문의 내용과 문자적으로 일대일 대칭될 수 있는 본문을 담고 있어 MT 본문이 오래된 전승을 담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3] 다만 BHS 사사기 편집자인 메이어(R. Meyer)는 1절의 여호수아의 죽음을 아마도 모세의 죽음 이후라고 주장하며 **מות משה**(모트 모쉐/모세의 죽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후 2장 6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기에 절충안으로 제안하였지만, 어느 사본도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본문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1절의 본문 **יהושע מות**(모트 여호슈아/여호수아의 죽음)는 유지되며 이는 여호수아서의 서두 부분과 대조를 이룬다(아래 참조).

12 Hayyim Angel, 윗글, 170.

13 사해 사본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the_Dead_Sea_Scrolls 참조 2021년 1월 11일 접속).

www.kci.go.kr

2) 주석

(1) 1절

본문은 **הִיה**(하야)동사와 결합된 바브 접속법으로 시작하고 있다.[14] **וַיְהִי**(봐예히)로 시작하는 문구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 발견되며[15], **וַיְהִי**(봐예히)와 전치사 **אַחֲרֵי**(아하레이)/**אַחַר**(아하르)가 함께 쓰인 구문의 본문도 몇 구절에서 발견된다.[16] 이 구문이 사용된 구절들은 이전의 사건과 이후의 내용을 연결할 때 사용되며, 따라서 본문과 같이 새로운 단락이 새롭게 시작될 때 이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김의원/민영진은 이 표현을 **וַיְהִי**(봐예히) 시간 어구로 파악하고 이는 기사의 연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사기를 앞선 기사와 연결시켜 연속으로 읽도록 요구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이 어구를 기록한 것은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여호수아의 활동과 죽음) 이후 전개되는 사건을 이제 기록하려는 것이다.[17]

---

14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즉, 율법서부터 일반적으로 신명기 역사서로 알려진 열왕기까지 서두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책들은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출애굽기-**שְׁמוֹת בְּנֵי יִשְׂרָאֵל**
אַחֲרֵי מוֹת מֹשֶׁה עֶבֶד יְהוָה-여호수아-**וַיְדַבֵּר יְהוָה אֶל־מֹשֶׁה**-민수기-**וַיִּקְרָא אֶל־מֹשֶׁה**-레위기-**וַאֲלֵה**
בַּיָּמִים-열왕기서-**וַיְהִי אִישׁ אֶחָד מִן־הָרָמָתַיִם צוֹפִים**-사무엘서-**וַיְהִי אַחֲרֵי מוֹת יְהוֹשֻׁעַ**-사사기-**וַיְהִי**
וְהַמֶּלֶךְ דָּוִד זָקֵן בָּא 출애굽기와 열왕기서는 접속사로 연결되고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는 모두 바브 연속미완료/접미동사로 시작하고 있다. 접속사로 시작하지 않는 책은 창세기와 신명기뿐이다. 만일 접속사가 앞의 내용을 뒤의 것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약성서의 첫 아홉 책은 두 부분 즉,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그리고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는 마틴 노트의 신명기 역사서 이론의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15 A. Even-Shoshan, *Concordance,* (The Latin Gate, 1840), 292-293.(Hebrew)

16 창 22:1, 20; 25:11; 39:7; 40:1; 48:1; 민 26:1; 수 1:1; 24:29; 삿 1:1; 16:4; 삼상 5:9; 24:6; 삼하 1:1; 2:1; 10:1; 13:1; 17:21; 21;18; 왕상 13:23, 31; 17:17; 20:4; 21:18; 왕하 6:24; 겔 16:23; 대상 18:1; 19:1; 20:4; 대하 20:1; 24:4; 25:14. 특이한 것은 이러한 표현이 후기 예언서에서는 겔 16:23을 제외하고 발견되지 않는 반면, 신명기 역사서에는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전체의 약 56%).

17 김의원/민영진, 윗글, 93.

www.kci.go.kr

표 1. 봐예히 아하레 모트 X 구문

창 25:11	וַיְהִי אַחֲרֵי מוֹת אַבְרָהָם וַיְבָרֶךְ אֱלֹהִים אֶת־יִצְחָק בְּנוֹ וַיֵּשֶׁב יִצְחָק עִם־בְּאֵר לַחַי רֹאִי
수 1:1	וַיְהִי אַחֲרֵי מוֹת מֹשֶׁה עֶבֶד יְהוָה וַיֹּאמֶר יְהוָה אֶל־יְהוֹשֻׁעַ בִּן־נוּן מְשָׁרֵת מֹשֶׁה לֵאמֹר
삿 1:1	וַיְהִי אַחֲרֵי מוֹת יְהוֹשֻׁעַ וַיִּשְׁאֲלוּ בְּנֵי יִשְׂרָאֵל בַּיהוָה לֵאמֹר מִי יַעֲלֶה־לָּנוּ אֶל־הַכְּנַעֲנִי בַּתְּחִלָּה לְהִלָּחֶם בּוֹ
삼하 1:1	וַיְהִי אַחֲרֵי מוֹת שָׁאוּל וְדָוִד שָׁב מֵהַכּוֹת אֶת־הָעֲמָלֵק וַיֵּשֶׁב דָּוִד בְּצִקְלָג יָמִים שְׁנָיִם

한편 본문처럼, "누구(X)의 죽음 이후에"라는 표현 (X **אחרי מות** 아하레이 모트 X/X의 죽음 이후)은 구약성서에서 몇 구절에서 발견된다[18]. 그러나 본문과 같이 X **ויהי אחרי מות**(봐예히 아하레이 모트 X/X의 죽음 이후에)의 표현은 표 1에서 보여주듯이 구약성서를 통틀어 오직 네 구절(창 25:11; 수 1:1; 삿 1:1; 삼하 1:1)에서만 기술되었다. 본문 1절의 첫 네 단어 וַיְהִי אַחֲרֵי מוֹת יְהוֹשֻׁעַ(봐예히 아하레이 모트 여호수아)는 사사기가 여호수아와의 연관성을 가진 본문으로만 관찰하였지만[19],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좀 더 확장되어 신명기 역사서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창세기의 본문을 제외하고[20] 모두 신명기 역사서에서 나타나는데, 이 구절은 모두 서두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을 지닌다.[21] 이 구문을 사용하

18 창 26:18; 레 16:1; 민 35:28; 왕하 1:1; 왕하 14:17; 룻 2:11; 대상 2:24; 대하 22:4; 대하 24:17; 대하 25:25

19 A.G. Auld, 윗글(1975), 267.

20 이 구절이 한 단락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다음 구절인 25:12절에서 엘레 톨레도트 구문이 사용되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21 이는 이 구문이 신명기 역사서(본 연구의 Dtr 1)의 서두 양식이라고 볼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사무엘서가 하나의 책으로 통합되었다고 한다면 사무엘하 1장 1절의 표현은 서두 양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명기 역사서 내 이 서두 양식이 오직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만 등장한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의 서두 부분의 관련성은 더욱더 분명해 진다.

www.kci.go.kr

고 있는 네 구절들을 분석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מות(모트/죽음) 다음에 인명이 언급된다: 창 25:11-아브라함, 수 1:1-모세, 삿 1:1-여호수아, 삼하 1:1-사울. 이 인물의 죽음을 언급한 이후 모든 구절에서 다음의 인물과 연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삭을,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 사울 다음을 다윗을 소개하여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다.[22] 따라서 본문 삿 1:1의 이 표현은 수 24장 이후의 중복된 내용의 첨가로 보는 견해는[23] 수용될 수 없고, 오히려 이 표현은 여호수아서와 연속되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24] 버틀러는 삿 1:1절의 이 표현이 여호수아서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삼하 1:1의 표현과 함께 살펴볼 때, 이러한 표현 문구는 편집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 단계(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왕이 없던 시대. 다윗을 통해 도입된 왕정 시대)로 생각게 함을 지적하였다.[25]

또한, 네 구절 공통적으로 ~의 죽음 이후 접속사로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고 있다. 창 25:11, 수 1:1, 삿 1:1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물의 죽음 이후 바브 접속법/바브 접두동사[26]가 사용되었다. 이는 한 인물의 죽음과 그 다음에 연결되어 소개된 인물이 연관되어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삼하 1:1에

---

22 본문 삿 1:1을 제외한 세 구절에서 모두 한 개인의 죽음 이후의 다른 한 개인을 연결한 반면, 본문에서만 한 개인 이후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소개되었다.

23 E. O' Doherty, 윗글, 2-4., Auld, 윗글, 265.

24 Robert G. Boling, *Judges* (New York: Doubleday, 1975), 66. Jeffery S. Stenvenson, 윗글, 45. 사사기 1장 1절의 여호수아의 죽음을 여호수아 24장과 연관시키는 것은(김의원/민영진, 윗글, 23) 여호수아 1장을 신명기 34장과 연관 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신 34장의 모세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이후 여호수아의 시작으로 여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사기 1장 1절을 수 24장의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사사 시대의 시작으로 알리는 사사기의 첫 서두로 볼 수 있다. 한편 버틀러는 여호수아서와의 관계속에서 사사기를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버틀러, 윗글, 92-104).

25 버틀러, 윗글, 185-186.

26 권성달, 「성경 히브리어 울판」 (서울: 솔로몬, 2018), 67-68.

www.kci.go.kr

서는 접속사 이후 주어 즉 인물이 등장하고 완료/접미동사가 구문이 소개된다. 이와 더불어 삼하 1:1이후에는 이 구문론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은 만약 이 구문론이 편집자의 손길이라면 편집자는 이 구문론을 다윗이라는 인물로 의도적으로 끝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라는 표현은 여호수아 24장 말미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술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 내용으로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라는 표현은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 12:7)"는 약속을 이루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27]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한다.[28] 이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질문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갈까요' 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질의로 이어진다.

וַיִּשְׁאֲלוּ בְנֵי יִשְׂרָאֵל בַּיהוָה לֵאמֹר

(봐이쉬알루 브네 이스라엘 바도나이 레모르/"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מִי יַעֲלֶה־לָּנוּ אֶל־הַכְּנַעֲנִי בַּתְּחִלָּה לְהִלָּחֶם בּוֹ

(미 야알레 라누 엘 하크나아니 바트힐라 레힐라헴 보/"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

27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세겜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 약속을 받았으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하고 이후 죽음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폰 라트가 주장한바 땅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여호수아와 연결된다(게르하르트. von 라트, 「구약성서신학 제 1권」 (허혁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1976), 원제는 Von Rad, Gerhar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and I* (München: Kaiser Verlag, 1969), 137-143).

28 사사기 1장의 본문과 여호수아서와의 연관성이 발견되기에 여호수아가 다 이루지 못한 과업이 그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궁금증은 합당하다. 따라서 본문 삿 1:1-2 다음의 구절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땅에 대한 정복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유다의 선두 지휘로 이루어짐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

www.kci.go.kr

בְּנֵי יִשְׂרָאֵל(브네 이스라엘/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은 창 42:5 이후 구약 본문에서 524회 사용된 매우 일반적인 표현이다. 왕정 시대 이후에도 쓰이고 있으며 왕국이 멸망 당한 이후에도 소수이지만 표현되고 있지만[29], 왕정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였다(427회. cf.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는 118회). 따라서, 본문의 사사기의 첫 구절의 주어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시하는 표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30]

주절의 동사로 샤알 שׁאל을 전치사 베 ב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웨[31] 하나님께 묻는 행위는 본문 이외에 사사기 20:18, 23, 27; 삼상 10:22 네 번 등장한다. 달리 말하면 질의 양식 שׁאל ביהוה(샤알 바도나이-샤알 שׁאל 베 ב+ 야웨/아도나이 יהוה)는 사사기와 사울 그리고 다윗 이야기[32]에서만 등장한다. 이 표현이 사사기 내에서는 본문 이외에 사용된 곳은 결론 부분에 속한 20장에서만 발견된다. 질의 양식뿐만 아니라 "누가 전쟁에 올라갈까요[33]?"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 내용 또한 삿 1장과 20장에서 똑같이 나타나며 아래에서 살펴볼 야웨 하나님의 응답 또한 "유다가 올라가라"로서 동일하다(1:2; 20:18).

---

29 겔 2:3; 4:13; 6:5; 35:5; 37:21; 43:7; 44:9, 15; 48:11; 스 6:21; 느 1:6; 8:14, 17; 9:1; 10:40; 13:2.

30 사사기내에서 בְּנֵי יִשְׂרָאֵל(브네 이스라엘/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은 자주(56구절에서 61번) 사용되었다. 한편 사사기 내에서 빈번하게 언급된 이 표현은 12-19장 사이에서는 13:1을 제외하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버틀러, 윗글 186.

31 야웨(יהוה)는 사사기에서 137구절에서 175차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들과 엘로힘 언급을 포함한 많은 구절은 야웨의 천사를 언급하거나 혹은 잘못된 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진술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사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본성에 관해 더욱 강력하게 전해 주고 있다. 버틀러, 윗글, 136-137.

32 삼하 2:1; 5:19, 23.

33 올라가다(עלה) 동사는 본문을 포함하는 사사기의 서두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삿 1:1, 2, 3, 4, 16, 22; 2:1) 강조된 단어 중 하나이다. 이 단어는 사사기의 결말 부분(삿 18:9, 12; 19:30; 20:3, 18, 23, 26, 28, 30, 31; 21: 5, 8, 19)에서도 매우 강조된 단어이기도 하다.

www.kci.go.kr

(2) 2절

וַיֹּאמֶר יְהוָה יְהוּדָה יַעֲלֶה

(봐요메르 아도나이 예후다 야알레/"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답하시는 내용이 뒤따른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대답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사사기의 서두가 1장 1절-2장 5절로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지도자의 이동을 서두 부분에 소개하고 있다. 모세가 죽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정하셨다 (민 27:15-23; 신 34:9). 그러나 여호수아서와 같은 양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행위를 하게 된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의 생애 때 지도자로 지목된 것과는 달리 자신의 생애 때 다음 지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여호수아의 역사를 계승할 것이며 다 이루지 못한 과업을 완수할 것인가?

"누가 먼저 가나안과 싸우기 위하여 먼저 올라갈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야웨의 대답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는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로 이어진 리더쉽이 여호수아 개인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로 이어졌음을 보여 준다. 환원하면, 사사가 리더쉽을 이어 받은 것이 아니라(!)[34] 유다가 이어받았다. 이

34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리더쉽이 사사에게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으나(임신호, "기드온 이야기(6-8장)와 아비멜렉 이야기(9장)의 신학적 통일성", 「구약논단」 25/2 (2019), 66-67), 사사기 구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술된 서두 부분과 결말 부분은 유다가 리더쉽을 차지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래 논의 참조).

www.kci.go.kr

대답 이후의 삿 1:3-36절의 내용은 이미 여호수아서 2-12장까지 이어진 내용을 기술한 내용을 전환시킨 것으로[35] 여호수아 중심의 정복 역사가 그가 죽은 이후에 유다 중심의 역사로 이어진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캠벨은 사사기가 여호수아 이후의 리더쉽의 실패를 증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보았으며[36] 슈나이더 또한 사사기가 퇴보적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37] 버틀러는 사사기의 몸통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개입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 지속적인 실패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사기에는 해결책을 담은 이야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사기는 단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으로 치달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금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구조적 분석은 단지 실패를 보여주기보다 여호수아의 리더쉽이 유다에게 이어진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버틀러가 주장한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창 49:8-10과 민 10:14에 나오는 "유다의 리더쉽" 주제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38] 타당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장의 내용은 사사기 결말 부분인 19-21장의 내용, 특별히 20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39] 이 두 본문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 구조와 단어 등에서 유사성은 분명하다. 질의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 싸우는 상대 등의 차이점이 있지만, 다루고 있는 본문 삿 1:1-2a의 17개의 단어 가운데 12개의 단어가 동일하다(굵게 표시). 단어뿐만 아니라 전쟁이

35 E. Theodore Mullen, Jr., 윗글, 34.
36 A.F. Campbell, *Joshua to Chronicles: An Introdu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4), 68.
37 버틀러, 윗글, 90.
38 버틀러, 윗글, 186. 이와 반대로 사사기에서 유다 지파의 활약이 미미하며, 이스라엘을 이끌만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하는 이도 있다. 윤동녕, 윗글, 26-27.
39 김의원/민영진, 윗글, 59-60.

www.kci.go.kr

라는 문맥적 상황, 질문과 대답의 구문 흐름 또한 동일하다. 이는 구문상 사사기 1장이 20장과 연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열두 명의 사사 활동을 기술하고 있는 삿 3-16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 누가 올라갈지 야웨께 묻고 유다가 올라가라고 야웨께서 응답을 주시는 내용에 의하여 감싸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40]

표 2. 삿 1:1–2a와 20:18절 본문 비교

삿 1:1-2a	삿 20:18
וַיִּשְׁאֲלוּ בְּנֵי יִשְׂרָאֵל בַּיהוָה לֵאמֹר מִי יַעֲלֶה־לָּנוּ אֶל־הַכְּנַעֲנִי בַּתְּחִלָּה לְהִלָּחֶם בּוֹ וַיֹּאמֶר יְהוָה יְהוּדָה יַעֲלֶה	וַיִּשְׁאֲלוּ בֵאלֹהִים וַיֹּאמְרוּ בְּנֵי יִשְׂרָאֵל מִי יַעֲלֶה־לָּנוּ בַּתְּחִלָּה לַמִּלְחָמָה עִם־בְּנֵי בִנְיָמִן וַיֹּאמֶר יְהוָה יְהוּדָה בַּתְּחִלָּה

한편, 19-21장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베냐민 간의 전투를 다루고, 앞의 내용 '미가 이야기'(17-18장)와 함께 "왕이 없었으므로"(17:6; 18:1; 19:1; 21:25)의 시대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문을 포함한 1장 1절-2장 5절의 서두 부분이 19:1-21:25의 결말 부분과 함께 사사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형성되었고, 1장과

40 볼링은 이 문구는 편집자의 동심구조(redactor's *inclusio*)로 보고 있다. Boling, 윗글, 53. 이 부분의 차이점은 야웨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장소에 대하여 삿 1장은 침묵하는 반면 삿 20장에서는 주요 성소 중 하나인 벧엘에서 이루어졌다. E. Theodore Mullen, 윗글, 44. 이외에도 사사기 1장과 20장 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1) 대적자 (가나안 vs. 베냐민) 2) 협력자 (시므온 vs. 이스라엘 자손) 3) 장소 (베섹 vs. 기브아) 4) 전쟁 횟수 (1회 vs. 3회) 5) 결말 연관성 (예루살렘 vs. 왕).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서 두 번 패배한 이후 모여 금식하였고, 제사(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 이스라엘 자손이 묻게 되는데 1장과 달리 언약궤가 등장하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된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승리하게 된다. 20장의 언약궤의 등장 등 이러한 차이점은 사사기 말미의 본문(19-21장)이 이후 전개되는 사무엘서와 연결시키는 역할에 기인한 것이다.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궤에 관심을 지녔고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서 언급된 "왕" 가운데 언약궤에 관심을 지닌 이는 다윗이다.

www.kci.go.kr

20장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리더쉽은 유다로, 즉, 유다 지파의 어느 한 왕에게로 집중된다.

버틀러는 사사기의 시작하는 구절과 마무리 짓는 구절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 구절들을 진중하게 다루는 것에서 사사기 연구의 시작으로 삼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첫 번째 구절은 분명하게 여호수아서로 돌아가는 것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 언급은 사사기 2:6-12에서 훨씬 더 분명해진다. 우리는 마지막 구절이 앞으로 나올 구절이 적어도 한 명의 왕을 향한다는 점을 그 왕은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단지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거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끌고 가지 않는 왕일 것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가정할 수 있다. 적어도 세 명의 왕들이 지금 이 묘사에 적합해 보인다-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41]

이 왕들 가운데 사사기에서 전해 주고 있는 장소들(베섹, 예루살렘, 베들레헴, 라마, 기브아 등)과의 지리적 연관성을 지니고 베냐민 지파와의 갈등과 연관을 지니며, 땅을 차지한 과업을 행한 이는 누구인가? (아래 3.4) 논의 참조).

- 하나님의 응답 이후 독특한 히브리 구문 표현이 이어진다: הָאָרֶץ בְּיָדוֹ הִנֵּה נָתַתִּי אֶת(힌네 나타티 에트 하아레츠 베야도/"보라 내가 그의 손에 그 땅을 주리라"

힌네(hnh)는 주위 환기를 위하여 종종 표현된다. 인간이 인간에게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나타난 경우와 같이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경우도 있다. 사사기 내에서 힌네는 13회 사용되었는데[42] 본문과 13장의 두 구절

41 버틀러, 윗글, 92.

42 1:2; 7:13; 8:15; 9:36, 37; 11:34; 13:3, 7; 14:16; 16:10; 19:9, 24; 21:19

www.kci.go.kr

(13:3, 7)을 제외하고 사람과 관련된 문맥에서 사용되었다.

힌네(הנה) 다음의 구문 נתן(나탄)+ את(에트) X + ב(베)/ל(레)문구는 구약성서에서 매우 자주 쓰인다. 땅을 누구에게/누구의 손에 준다는 표현은 "명령 전달 공식"이다.[43]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을 ~의 손에 주시겠다'는 말씀은 승리 공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후(창 12:7)[44], 이삭, 야곱을 거쳐 거듭 언급되었으며, 출애굽과 광야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계속하여 상기시켰다. 거듭 강조하신 내용으로 본문 이전까지 93구절에서 표현되었다.[45] 횟수에서 드러나듯이 땅을 주겠다고 한 구문 표현은 오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45회).[46]

신명기 역사서에서 이 승리 공식을 많이 언급한 것은 여호수아이다(16회). 반면 본문 이후에 사사기 내에서는 오직 한번 언급되어서 이 표현이 사사기 내에서는 중요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47] 더 넓게는 신명기 역사서에서

---

43 B.O. Long, *2 Kings*. FOTL 10(Grand Rapids: Eerdmans, 1991), 320.

44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승리 문구 이후 그 땅의 족속을 소개하는 본문이 창 13:7절에 등장한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사사기에서도 땅을 주시겠다는 승리 문구 이후 유다와 시므온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싸웠다고 전하고 있다(삿 1:4-5). 여기서 승리 문구와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cf. 수 7:1) 가나안족과 브리스족을 함께 언급하는 창세기 12-13장과 삿 1장 간의 연관성이 발견된다. 이미숙은 땅을 주시겠다고 표현을 수여유형(내가(야웨) 네게(또는 조상)에게 준 땅), 맹세유형(내가(야웨) 네게(또는 조상) 주기로 맹세한 땅), 점유유형(네가 들어가(또는 건너가) 차지할 땅)로 나누고 이 표현들이 신학적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였다(이미숙, "신명기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약논단」 21/1(2015), 33-34). 본문의 표현은 수여유형과 연관된다.

45 창세기 12회, 출애굽기 7회, 레위기 4회, 민수기 9회, 신명기 45회, 여호수아서 16회: 창 13:15; 15:7, 18; 17:8; 24:7; 26:3, 4; 28:4, 13; 35:12; (45:18); 48:4; 출 6:4, 8; 12:25; 13:5, 11; 32:13; 33:1; 레 20:24; 23:10; 25:2, 38; 민 14:8; 21:34; 32:5, 7, 9, 33; 33:53, 34:13; 36:2; 신 1:8, 25, 35, 36, 2:29; 3:12, 18, 20; 4:1, 21, 38; 5:31; 6:10, 23; 9:6; 10:11; 11:9, 17, 31; 12:1; 15:4, 7; 16:20; 17:14; 18:9; 19:1, 2, 8, 10, 14; 24:4; 25:19; 26:1, 2, 3, 9, 15; 27:2, 3; 28:8, 52; 31:7; 32:49, 52; 34:4; 수 1:2, 6, 11, 13, 15; 2:9, 14, 24; 5:6; 8:1; 9:24; 18:3; 21:43; 23:16; 24:3, 13.

46 이와 더불어 신명기에 땅 표현양식이 많이 발견된다(이미숙, "신 10장 12절-11장 32절에 나타난 땅 표현양식과 땅 사상", 「구약논단」 15/4(2009), 51-53.

47 그러나 사사기 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대적자를 주셨다는 구절은 자주 발견된다(2:23, 3:10,

www.kci.go.kr

도 드물게 기술하고 있다.[48]

따라서, 승리 문구는 사사기 1:2절이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본문 바로 다음에 유다 지파의 땅 점령 기사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유다에 그 땅을 주셨다는 명령 전달 공식이 그에 의하여 성취되는 구조로 여겨지며, 이는 사사기 1장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9] 사사기 편집자가 "내가 그들의 손에 그 땅을 주었다"라는 여호수아에게(수 1:2-5)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제는 유다에게 넘겨졌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리더쉽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다(수 1:1). 이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거나 도전하는 이는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정하셨기 때문이다(민 27:15-23; 신 31; 34:9).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행위를 하게 된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의 생애 때 지도자로 지목된 것과는 달리 자신의 생애 때 다음 지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한 개인 지도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그 역사를

28; 4:14; 11:21, 30, 32; 12:3; 16:23, 24; 20:28. 버틀러, 윗글, 47 참조).

48 신명기 역사서의 사무엘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 기도를 할 때 두 번 강조되어 언급되고 있다(왕상 8:36, 48. cf. 대하 6:27, 38). 한편 신명기 역사서 이후에도 이 구문 표현은 종종 언급되고 있다(대상 16:18; 대하 6:27; 6:38; 20:7; 느 9:8, 15, 36; 욥 15:19; 시 105:11, 44; 115:16; 135:12; 136:21; 렘 3:19; 11:5; 27:5, 6; 32:22; 겔 11:15; 20:28, 42; 29:20; 33:24; 36:28; 37:25; 47:14). 땅을 주신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강조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며 이사야서와 소선지서에서는 이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이사야에서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거주하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편 예레미야서에서는 조상들에게 주리라 언약하신 땅임을 언급한 반면, 그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징벌로 이해된다(렘 27:6). 에스겔의 한 구절(29:20)에서는 구약성서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 즉, 애굽 땅을 이방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에게 주신다는 표현이 발견된다.

49 임봉대, 윗글, 46. 이 외에도 유다 지파의 성공적인 점령(1:18-19절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과는 달리 다른 지파들의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도시들의 열거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www.kci.go.kr

계승할 것인가?

본 구절에서 리더쉽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진 이후 여호수아 개인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중심은 유다로 이어지게 한다. 삿 1:3-36절의 내용은 이미 여호수아서 2-12장까지 이어진 내용을 기술한 내용으로[50] 전환된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사사기 즉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 중심의 정복 역사가 유다 중심의 역사로 이어진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사기의 형성과정에서 본문 이해

사사기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형성되기까지 긴 기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기사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점이다.[51] 한편, 서두 부분과 결말 부분이 사사기 본론 부분과 연관된 것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발견된다. 우선, 사사기 편집자는 1장의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에 대한 목록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대사사들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52] 또한 서두 부분과 결말 부분의 유다 지파를 강조한 점은 열 두 사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옷니엘을 두고 있다는 점과 사사기의 역사 기술 패턴 구조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 곳은 옷니엘 밖에 없다는 점 등은 서두 부분이 열 두 사사 이야기의 모

50 E. Theodore Mullen, Jr., 윗글, 34.

51 Cheryl A. Brown, 윗글, 127-130, J. 클린턴 맥캔, 윗글, 32-37.

52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의 순서는 유다-베냐민-요셉(에브라임과 므낫세)-스불론-아셀-납달리-단으로 대사사들의 기술 순서는 옷니엘(유다지파)-에홋(베냐민지파)-드보라/바락(에브라임지파/납달리)-기드온(므낫세지파)-(입다-길르앗)- 삼손(단지파)이다. 해밀턴, 윗글, 130-132 참조. 이 성읍들의 순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리적인 요소로 분석하는 것은(해밀턴, 윗글, 130-132., Younger Jr., 윗글, 76, 80) 수용할 수 없다. 단지파에 관한 기술은(1:34-35) 삼손이 거주했던 지역과 연관된 것으로 앞서 언급된 납달리보다 더 남쪽이다. 따라서 단 지파에 관한 기술은 사사 삼손과 연관되어 기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www.kci.go.kr

음집과 전혀 상관없이 배열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53] 이러한 점을 볼 때 본문을 포함한 사사기의 서두 부분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배열한 편집자에 의하여 기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사기 1-21장의 형태가 편집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환언하면, 본문은 사사기의 형성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진 기술로 볼 수 있다.

위 사항들을 바탕으로 본문을 크게 세 단락(아래의 A-B-C), 좀 더 세분하여 다섯 단락(A1+A2-B-C1+C2)으로 나눌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복원할 수 있다.[54]

서두 1 (A1: 1:1-2:5)

서두 2 (A2: 2:6-3:6)

본론 (B: 3:7-16:31)[55]

결말 1 (C1: 17:1-18:31)

결말 2 (C2: 19:1-21:25)

1. 서두(A1, A2)는 한편으로 여호수아서와 연관된다. 연결된 인물 여호수아는 오직 이 부분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수 2-12장, 13장)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시 반복되고 있다. A는 또 다른 한편으로 결말(C, 결말 2-C2)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56]

2. 내용상으로 고대성을 지닌 본론(B)의 내용 배열은 서두 2(A2)와 결말 부

53 해밀턴, 윗글, 138-142, 146.

54 버틀러, 윗글, 60, 해밀턴, 윗글, 125 참조. 이 단락들은 다시 층위를 구성한다. 즉 사사기는 세 개의 큰 층(strata)을 이루며 서두 부분과 결말 부분은 각각 두 개의 단계(phases)를 지닌다.

55 본론(B)는 이른바 "구원자의 책"(Book of Deliverers)으로 열두 사사들의 모음집으로 전해졌거나(W. Richter, *Tradi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m Richterbuch* (BBB 18. Bonn: Hanstein, 1966), 319-343), 대사사 중심으로 이어지고 이후 소사사들이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56 Robert H. O`Connell, 윗글, 12-13.

www.kci.go.kr

분(C, 결말 2-C2)과 연관된다. 즉 본론의 배열 순서와 묘사 패턴은 서두 부분(A)과 결말 부분(C)의 저자/편집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본론의 묘사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서두 2(A2)가 본론(B) 앞에 위치한다.[57]

3. 결말 1(C1)은 한편으로 본론(B)의 마지막 사사(삼손)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C2(결말 2)와 연관성을 지닌다. 본론(B)에 결말 1(C1)이 먼저 붙여졌고, 이후 결말 2(C2)가 첨가되었다.

4. C의 내용은 사사기 이후의 책 사무엘서와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사사기는 크게 세 개의 층위(strata)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은 도식(그림 1 참조)으로 설명된다. 즉, 가장 먼저 본론이 형성되고 (가장 오래된 층위 Stratum 3), 이후 서두 2와 결말 1 (Stratum 3과 연관하여 그 위에 세워진 층위 Stratum 2), 이후 마지막으로 서두 1과 결말 2가 놓여진다 (Stratum 2와 연관하여 그 위에 세워진 층위 Stratum 1).

위의 고찰을 바탕으로 사사기는 가장 먼저 본론(B)가 전승/기술되었고, 이후 서론 2(A2)와 결말 1(C1)이 기술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서론 1(A1)과 결말 2(C2)가 기술되어 최종적인 형태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결말 2와 함께 Stratum 1에 속한 것으로 사사기 형성에서 가장 나중에 생겨난 층위라고 할 수 있다.[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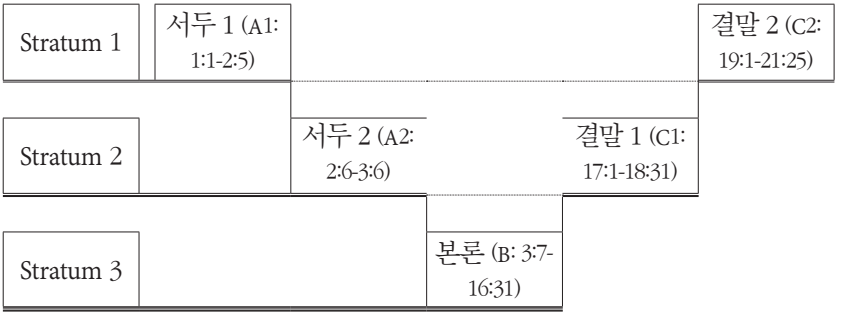
---

57 소긴은 2:6-16:31 내용이 사사기의 주요 몸통이라고 보고 있다. 즉 패턴 구조와 열두 사사들의 내용 전체가 하나로서 기술되었다고 보고 있다. Soggin, 윗글, 4.

58 각 층위에서 형성된 본문에 추가적 기술이 생겨날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를 거쳐 완성된 본문이 전승되면서 전승자 또는 편집자의 손길에 의하여 일부 구절이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맥캔, 윗글, 31-37, 트렌트, 윗글, 82-104 참조.

www.kci.go.kr

그림 1. 사사기의 세 층위와 구조 관계



4) 역사적 정황에서 본문 이해

사사기의 문학적 또는 신학적 분석이 중요한 만큼 또한 역사적 정황 분석 또한 간과할 수 없다.[59] 이는 사사기의 기록목적과 연관이 되는데 곧 그것은 저작의 시기 또는 독자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리 이해되기 때문이다.[60]

마틴 노트의 "전승사적 연구(*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가 출판된 이래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적 역사가의 최종 편집이 사사기의 현재 형태를 결정지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사사기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사사기를 신명기적 역사서인 여호수아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동일선상에 두고 해석하는 연구를 시작하였다.[61] 신명기 역사서술은 요시야 시대

59 Cheryl A. Brown. 윗글, 124. 사사기를 역사적 허구로 보고 있는 의견이 있으나(예를 들어, Daniel I. Block,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9), 51), 본 논문에서는 제외한다.

60 버틀러, 윗글, 120.

61 윗글, 72. 최근 신명기 역사서를 확대적으로, 폭넓게 이해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이은우, "신명기와 전기 예언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성서마당」통권 85호(2008), 65-78., 이상원, "열왕기에서의 '제의단일화규정'",「제 101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미간행 2016), 221을 보라.

www.kci.go.kr

또는 포로 후기 때에 편집된 것으로[62], 적지 않은 학자들은 고대의 상황을 기록한 부분들은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주장한다.[63]

본 연구에서는 순환적 논리를 피하고자, 신명기 역사서의 접근에서 사사기의 역사적 정황을 살피는 것을 지양하고, 사사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살피면서 귀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 사사기의 최종 편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은 18:30에서 기술하고 있는 단 지파의 제단을 비판하는 사건이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구절은 아마도 주전 730년대 말의 티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한 북쪽 지역의 멸망과 연관시킬 수 있다.[64] 이것은 아마도 사사기의 최종 편집자가 주전 8세기 말경 이후에 살았던 사람임을 암시한다.

(2)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 사사기에서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지리적 표현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지리적 경계는 단지파의 이동 (18장)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다.[65] 따라서 이 지리적 경계에 대한 묘사는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경계 범위 문구는 통일 왕국 시대에서만 표현될 수 있고(삿 20:1; 삼상 3:20; 삼하 3:10; 17:11; 24:2, 15; 왕상 4:25, cf.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대상 21:2; 대하 30:5),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는 표현되지 않았다. 또한 이후 시대의

---

62 윤동녕, 윗글, 15-18.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적 역사가"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 여기고 있다. 버틀러, 윗글, 59 참조.

63 예를 들어, 이스라엘 핑컬스타인과 닐 애서 실버먼.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오성환 역. 서울: 까치글방. 2002.

64 해밀턴은 주전 720년대 말로 연관시켰으나 (해밀턴, 윗글, 123) 분명 단이 속하였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과 이스르엘 평야 지역은 그보다 10년 이전인 주전 730년대에 멸망당하였다. 앤손 F. 레이니/R. 스티븐 나틀리, 「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강성열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10), 301-304. 원제 Rainey, Anson F./Notley, R. Steven., *The Sacred Bridge: Carta's Atlas of the Biblical World* (Jerusalem: Carta, 2006).

65 텔 단에서 나온 발굴 결과는 초기 철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A. Biran, "Tel Dan", E. Stern, ed. *The New Encyclopedia of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1.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326-327..

www.kci.go.kr

어떤 왕도 이 경계 범위를 다시 재건하려는 시도를 행하지 않았음을 볼 때 이 문구는 분열 왕국 시대 이후 또는 포로 시기의 반영이라는 추측을 하기가 힘들며 역사적 정황을 통일왕국시대로 둘 수 있다.

(3) 언급된 주요 지명들: 사사기에는 103개의 지명이 언급되었다. 이 가운데 몇 개의 지명들은 사사기의 역사적 정황을 살피는데 도움을 준다. 그 중 베섹, 여부스성/예루살렘, 헤브론, 딤나, 단, 실로, 기브아, 라마, 미스바, 벧엘[66] 등의 도시들과 관련된 내용은 왕정 시대와 일부 포로 시대와 관련 되어 언급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사무엘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집중하여 나타난다. 오늘날의 키르벳 이브직 또는 키르벳 살하브로 추정하고 있는 베섹은 구약성서에서 유일하게 삿 1장과 삼상 11장에서 언급된다.[67]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라고 명령을 받은 이후 처음 전투한 곳을 베섹으로 지정한 것은 삿 1장의 내용과 삼상 11장 내용 간의 상관성을 암시하는 듯하며,[68] 예루살렘이 이방인 여부스의 성이었다가 이스라엘인들의 도시가 된 것은 다윗 때에 이루어진 일이다.[69] 딤나가 블레셋인들의 도시가 된 것은 오직

---

66 버틀러는 벧엘을 중심으로 역사적 환경을 분석하여 9가지 경우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베냐민, 에브라임, 단 지파와 함께 결합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사기의 저작 시기의 후보로 네 시기가 가능한데 그 중 처음으로 왕권을 고대하고 있던 책으로 사울/다윗과 라이벌인 이스보셋과 관련된 책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버틀러, 윗글, 119-120). 그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벧엘과 함께 주요한 제의 장소로 기술되고 있는 실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면 그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한편 사사기 17-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과 벧엘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며 암시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두 장소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Cheryl A. Brown, 윗글, 128. 이러한 점은 사사기의 최종 편집 연대가 왕국 시대임을 보여 준다.

67 버틀러, 윗글, 190-191.

68 일부 학자들은 삿 1장의 베섹과 삼상 11장의 베섹이 동명이지로 이해하고 있다. 삿 1장의 베섹은 게셀 부근의 장소로 삼상 11장은 세겜 북쪽의 장소로 이해하려 한다. E. Theodore Mullen, 윗글, 각주 46번, 버틀러, 윗글, 190 참조. 그러나 삿 1:4, 5, 35에서 언급된(사사기 내에서 브리스 족속은 오직 삿 1장에서만 언급된다) 브리스 족속에 대하여 수 17:15은 요셉 족속의 산지 지역과 연결하여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삿 1장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운 베섹이 삼상 11장의 세겜 북쪽의 땅과 연결시키는 것을 배격하지는 않는다.

69 예루살렘은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일시적으로 함락하고 불태웠지만 그곳 주민을 멸절시키지 못하였다(1:8). 얼마 후 여부스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취하였고 이후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www.kci.go.kr

사사 시대 때에 이루어진 일이며,[70] 실로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주요 제의 장소로서 언급되며 이곳의 발굴 결과는 초기 철기 시대의 상황에 적합하다.[71] 창세기에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합시키는 헤브론은 갈렙에 의하여 정복되었다고 전하고 있다(창 13:18[72]; 23:2, 19; 35:27; 37:14; cf. 민 13:22; 수 10장; 11:21; 12:10; 14:13-15; 15:13, 54; 20:7; 21:11, 13; 삿 1장). 헤브론은 다윗과 연결하여 기술한 뒤(삼하 2-5장[73], cf. 15장, 왕상 2:11), 열왕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신명기 역사서 주요 편집 시대로 알려진 요시야시대 뿐만 아니라 포로기/포로 귀환 시기에 전혀 중요한 장소로 언급되지 않는다).

(4) "**오늘날까지**" - עַד הַיּוֹם הַזֶּה(아드 하욤 하제): 수용된 전승에 덧붙여서 그것을 확증하는 개인적 증언의 형식문[74]인 이 표현은 사사기에서 일곱 번 언급되었다(삿 1:21, 26; 6:24; 10:4; 15:19; 18:12; 19:30). 1:21절은 오늘날까지 여부스족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1:26절은 벧엘의 옛 이름

(삿 1:21. cf. 수 15:63) 다시 정복하지 못하였다 (김의원/민영진, 윗글, 86). 이 도시는 사무엘 또는 사울 시기에 전혀 관심을 받지 않다가 다윗 시대에 정복되어 왕국의 수도가 되며 그 이름도 다윗성이 된다 (삼하 5).

70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딤나는 블레셋인들의 도시로 등장한다. 소렉 골짜기에 위치한 텔 바타쉬와 동일시 되는 딤나는 아마하이 마자르에 의하여 발굴되어 정착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블레셋 정착은 지층 5와 연관된 것으로 초기 철기 시대(주전 약 1200-1000년)로 편년된다. A. Mazar/N. Panitz-Cohen, *Timnah (Tel Batash) II: The Finds From the First Millennium BC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1), 273-285. A. Mazar, *Timnah (Tel Batash) I: Stratigraphy and Architectur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7) 참조. 이는 블레셋의 팽창 시기에 쉬펠라 지역에 진출한 역사와 부합한다. L.E. Stager, "Forging An Identity", M.D. Coogan, ed. *The Oxford History of the Biblical World*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23-175. 따라서 딤나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삼손 이야기는 사사 시대 때의 역사적 정황을 지닌다.

71 실로의 발굴 결과는 분열왕국 초기, 므낫세 시기, 포로기 시기와는 상관 없다. I. Finkelstein, S. Bunimovitz, Z. Ledermann and B. Brandle, *Shiloh: The Archaeology of a Biblical Site*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1993)를 보라.

72 아브라함의 헤브론 정착은 법률적 언어로 재확인된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의미를 지닌다. 월커/프레드릭스, 윗글, 390-392.

73 다윗 이후 헤브론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다(삼하 15장). 압살롬이 반역의 시작 장소를 헤브론으로 삼은 것은 그 도시의 중요성이 다윗 왕국의 수도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지속 되었음을 보여준다.

74 B.S.Childs, "A Study of the Formula 'Until This Da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2(1963), 279-292.

www.kci.go.kr

이 루스임을 언급하고 있다. 여부스성이 이스라엘의 도시가 된 것은 다윗 시대이며 예루살렘/다윗성으로 불려진 이후 어느 곳에서도 여부스성으로 불려지지 않으며, 사사기 본문 이후에 벧엘이 다시 루스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승이 없다. 6:24절은 야웨 샬롬 전승을 알려주는데 이 본문 이후 이에 대한 전승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기드온 이야기와 연관한 이 전승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 당하고 난 이후에는 연관시킬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 전승도 왕국 멸망 이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4절의 "하봇 야일"은 민 32:41; 신 3:14에도 전해진 강한 전승이다. 오늘날까지 불려졌던 "하봇 야일" 전승 역시 사사기 이후에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15:19절의 "엔학고레", 18:12절의 "마하네단"은 공통적으로 본문 이후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9:30절의 "출애굽이후 오늘날까지" 표현은 사람을 토막을 내어 나누어지는 사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 이후에 어떤 전승도 이와 연관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사항 가운데 어느 본문도 사사기 이후의 책들과 연관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저자 또는 편집의 시대까지 위의 사항들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사사기 내에서 서론, 본 내용, 결말 부분에 모두 언급되어 있는 편집자/저자의 시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사사기의 형성 과정을 고려한다면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은 가장 위층(Stratum 1) 즉 마지막에 형성된 본문(서두1과 결말 2)에서도 발견된다. 이 표현들은 모두 고대성을 나타내며 예루살렘을 바탕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윗 시대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여준다.

(5) 유다 지파 vs. 베냐민 지파: 사사기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대조/대립이 기술되고 있다. 서두 부분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간의 대조가 여부스성/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던 반면(1:8) 베냐민은 예루살렘에

www.kci.go.kr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1:21).[75] 기술된 순서 또한 유다 이후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내용이 묘사된다. 이 순서가 사사들 소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유다 지파 출신 사사 옷니엘 소개(3:7-11) 이후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사 에훗을 소개(3:12-30)하고 있다. 사사기 결말 부분에서는 이 대조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다 지파 중심의 온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통한 직접적인 갈등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9:1-21:24). 그 갈등의 전장은 베냐민의 도시 기브아였으며 이는 사울의 고향이었으며(삼상 10:26) 이후 그의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삼상 13장).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간의 갈등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이어졌으며(삼상 18-27장), 이후 때로는 그들과 관련된 세력 간의 충돌을 낳았다(삼하 2-4장, 6장, 16:1-14, 20:1-22, 왕상 2:8-9, 36-46. cf. 삼상 9장, 19:16-23).[76] 분열 왕국 초기 북이스라엘 왕국과의 대립 관계에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데(왕상 12:21-24), 통일 왕국 솔로몬 시대, 아마도 말기에 베냐민 지파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이후 한동안 베냐민 지역은 분열된 두 왕국의 전쟁터가 되었다가(왕상 15:16-22), 남유다 왕국에 합병되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었을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고(에스더서에서 이 결과를 볼 수 있다), 함께 귀환하는 역사를 함께 맞게 된다(스 1:5, 4:1, 10:9, 느 3장, 11:4).[77]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사사기에 드러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간의 갈등은 분열왕국 시기 이전의 역사적 상황과 가장 잘 부합한다. 두 지파 간의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결말 부분에 언급된 장소들 베들레헴, 예루살렘, 라마, 기브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대

75 이창엽,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구약논단」20/2(2014), 73-93.

76 안한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분쟁에 나타난 상생과 상극-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 여정의 신학적 재고(삼하 2:1-5:5; 19-20장)",「Canon & Culture」14/1(2020), 37-75.

77 김지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스 4:1)에 관한 연구",「구약논단」10(2001), 85-101.

www.kci.go.kr

는 사울과 다윗 시대라고 할 수 있다.[78]

(6) 마지막 사사- 삼손: 사사기 편집자는 열 두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삼손을 소개하고 있다(13-16장). 즉, 결론 부분으로 이어지는 본문 마지막 사사를 블레셋을 대항하였고, 지파 연합이나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행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블레셋을 대항하여 물리쳤고, 블레셋에 붙잡혀 자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 삼손의 이야기를 배치하면서 왕의 부재 이야기를 처음으로 언급한다(17:6). 이스라엘 왕 가운데 영웅적인 활동을 하면서[79],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고 그들에 의하여 사로잡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 이는 사울이다. 즉, 삼손의 이야기 복면에는 사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면, 사사기 형성의 주요한 작업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결말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서두 부분의 첫 구절인 본문은 사사 시대 이후 다윗 시대에 편집된 구절이라고 이해된다.

맥켄은 일찍이 사사기 속의 자료들 중 대부분은 주전 1200-1020년경 즉, 사사 시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고대 자료들은 아마도 위에서 살펴본 과정을 그쳐 수정과 보충 및 재배열의 단계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지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0] 도르시는 사사기가 아마도 통일 왕국 초기로 여겨지는 저자의 시대에 퍼져 있던 일반적인 관점과 상반되는 이야

78 오코넬은 사사기의 수사학적 표현들을 면밀히 살피 이후 결론 내리기를 사사기가 삼하 1-4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가장 잘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사사기를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에 대한 변증적인 책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사사기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에 대한 논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R.H. O`Connell, 윗글, 268-342).

79 대사사 가운데 삼손 이외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와 함께 적군을 물리치지 않고 자신 혼자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옷니엘 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블레셋과 대항한 사사는 삼손 이외에 삼갈을 언급하고 있는데(3:31) 이들은 모두 홀로 영웅적 활동을 벌인 공통점을 지닌다.

80 J. 클린턴 맥캔, 윗글, 31.

www.kci.go.kr

기를 전하기 위해 쓰여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사기를 통하여 저자는 사사들의 시대가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던 시대 즉, 이스라엘의 옛 영웅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끌어 주던 시대라는 관점을 제시한다.[81]

일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에 대한 표현을 제외하고[82],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다윗 시대 이전의 삶의 실재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려 주며,[83]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윗 이야기에서 기대할 수 있다.[84] 사사기 본문은 결국 암시적으로 유다의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85] 다가올 통일 왕국 시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역사가의 역사적 고찰 즉, 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반성을 염두하여 일반적 왕국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86] 그러나 이는 사사기 끝부분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온 족속 간의 갈등이 설명되지 않기에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무엘에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사사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통일 왕국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87] 다윗 시대라고 한다면 기존의 신명기 역사서에 대한

---

81 D.A. De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120.

82 18:30의 기술을 고려한다면 최종 편집은 적어도 왕국이 분열된 이후이며, 주전 8세기 말경을 그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사사기 형성 이후 사무엘서/열왕기와 함께 엮어질 때 기술된 구절로 이해할 수 있다.

83 버틀러, 윗글, 116.

84 윗글, 103.

85 M.A. Sweeney, 윗글, 517-529. 이 사항은 앞서 살펴본 본문의 "내가 이 땅을 그(유다)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는 구절과 연관된다.

86 Cheryl A. Brown, 윗글, 129. 버틀러는 사사기의 저작 시기에 대하여 네 시기를 후보로 제시하고 있다. 1) 미래의 왕권을 바라보고 있는 포로기/포로기 이후, 2) 비이스라엘적인 왕권에 반대하는 므낫세 시기, 3)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논쟁과 관련된 분열 왕국 초기, 4)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왕권을 고대하는 사울/다윗과 라이벌인 이스보셋과 관련되 시기. 버틀러, 윗글, 120.

87 A.E. Cundall/L. Morris. *Judges and Ru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68), 26. 왕국 시대의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보라의 노래(5장), 예루살렘이 정복되기 이전에 여부스인들 수하에 있었던 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사사기가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www.kci.go.kr

이해는 바뀌어져야 한다.[88]

4. 결론

위의 본문 주석 작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사사기의 시작 문구인 사사기 1장 1절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라는 표현은 신명기 역사서의 서두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명기 역사서의 서두 양식은 신명기와 함께 열왕기까지 한 묶음으로 생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육경설을 주장하였던 폰라트의 주장에 반하는 문학적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마틴 노트의 신명기 역사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웨께 전쟁에 대한 질의와 야웨의 "유다가 올

다윗 왕조가 세워져 가는 어간에 사사기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의원/민영진, 윗글, 38-39). 그러나 아울드는 사사기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인 1장 1절-2장 5절과 17-21장 전체에 대해서 신명기적 저자 이후에 유대 편집자가 편집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A.G. Auld, "Review of Boling's Judges: The Framework of Judges and the Deuteronomist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1976), 46. 그에 대한 볼링의 응답으로 R.G. Boling, "Respons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1976), 47-50을 보라.

88 크로스가 제안한 신명기 역사서가 Dtr 1. Dtr 2로 나누어진 형성과정을 한 단계 더 추가하여 Dtr 1-통일 왕국 시대- 다윗 시대, Dtr 2- 요시야 시대. Dtr 3- 포로 시대로 제안할 수 있다. Dtr 1 시기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허락하신 땅에 대한 약속과 언약이 다윗 시대에 완성이 됨을 보여준다. 사사 시대의 혼돈이 진정한 왕의 시대의 도래에 대한 희망은 왕정 시대를 향하고 갈등 구조 속에서 파악한 바 그 왕은 다윗을 지목하고 있다. 사사기 내에서 요시야를 가리키거나 암시하는 구절 또는 Dtr 2 시기의 율법책 발견 이후의 종교개혁적 모습, Dtr 3 시기의 왕국 멸망에 대한 역사적 반성 등에 대한 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사사기가 다윗 왕조의 발흥을 암시적이나마 주목적으로 두었다면 요시야 시대에는 그러한 주장이 필요 없었고 포로기 때에는 다윗 왕조의 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사사기는 일부 최종적인 편집 구절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Dtr 1시기 즉 다윗 시대에 형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사기를 신명기적 역사서 배경에서 주전 7세기 또는 포로 시기의 배경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제한되어야 한다.

www.kci.go.kr

라갈지니라"는 대답은 지도권에 관한 것으로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 개인에게 넘겨진 것과는 달리, 여호수아 이후 지도권이 개인이 아닌 유다에게 넘겨졌음을 보여 준다.

셋째, 본문은 사사기의 첫 번째 서두에 속한 구절로 사사기의 두 번째 결말과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들은 사사기 형성과정 가운데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층위(Stratum 1)에 속하며, 공통적으로 유다가 강조된다.

넷째, 본문과 사사기에 쓰인 표현과 언급된 지명 분석, 내용 배치 등은 일부 구절을 제외하고 사사기가 암시적으로 다가올 유다 지파의 왕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사사기의 도입부의 첫 구절로서 사사기 형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호수아서와 연결된 사사기 내용 전체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구절로 왕정 시대와 유다를 향하며 암시적으로 사울 왕가 이후의 다윗을 향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5. 참고문헌

권성달.「생생한 성경 히브리어 울판」(서울: 솔로몬, 2018).

김의원/민영진.「사사기/룻기」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김지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스 4:1)에 관한 연구",「구약논단」10(2001), 85-101.

김회권.「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 · 사사기 · 룻기」(서울: 복있는 사람, 2007).

브루스 K. 월커, 캐시 J. 프레드릭스,「창세기 주석」(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원제 Waltke, Bruce K./Fredricks, Cathi J., *Genesis: A Commentary*

www.kci.go.kr

(Grandville, MI: Zondervan, 2001).

빅터 P. 해밀턴,「역사서개론」(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5). 원제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안한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분쟁에 나타난 상생과 상극-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 여정의 신학적 재고(삼하 2:1-5:5; 19-20장)",「Canon & Culture」14/1(2020), 37-75.

앤손 F. 레이니/R. 스티븐 나틀리,「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강성열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10). 원제 Rainey, Anson F./Notley, R. Steven., *The Sacred Bridge: Carta's Atlas of the Biblical World* (Jerusalem: Carta, 2006).

윤동녕.「사사기 연구: 사사기의 사회학적 주석」(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 2016).

J. 클린턴 맥캔,「현대성서주석: 사사기」(오택현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원제 McCann, J. Clinton., *Judge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이미숙, "신명기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구약논단」21/1(2015), 33-59.

이미숙, "신 10장 12절-11장 32절에 나타난 땅 표현양식과 땅 사상",「구약논단」15/4(2009), 51-68.

이은우, "신명기와 전기 예언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성서마당」통권 85호(2008), 65-78.

이상원, "열왕기에서의 '제의단일화규정'",「제 101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미간행 2016), 221-229.

이창엽,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구약논단」20/2(2014), 73-93.

임봉대, "사사기 1:9-15에 나타난 남부 지파들의 정착과 약속의 땅 성취에 관한 고찰",「구약논단」26/1(2020), 37-59.

임신호, "기드온 이야기(6-8장)와 아비멜렉 이야기(9장)의 신학적 통일성",「구약논단」25/2 (2019), 66-90.

트렌트 버틀러,「사사기. WBC 주석」(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원제 Burtler, Trent D., *Judge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8. (Nashville: Thomas Nelson

www.kci.go.kr

Publishers, 2008).

게르하르트 폰 라트,「구약성서신학 제 1권」(허혁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1976), 원제 Von Rad, Gerhar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and I* (München: Kaiser Verlag, 1969).

이스라엘 핑컬스타인/닐 애셔 실버먼,「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오성환 옮김), (서울: 까치글방, 2002). 원제 Finkelstein, Israel/Silberman, Niel Asher., *The Bible Unearthed: Archaeology's New Ver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s* (New York: Free Press, 2001).

Angel, H. "One book, two books: the Joshua-Judges continuum." *Jewish Bible Quarterly* 36/3(2008), 163-170.

Auld, A.G., "Review of Boling's Judges: The Framework of Judges and the Deuteronomist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1976), 41-46.

Auld, A.G., "Judges I and history: a reconsideration." *Vetus Testamentum* 25/2(1975), 261-285.

Biran, A. "Tel Dan", E. Stern, ed. *The New Encyclopedia of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1.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323-332.

Block, Daniel I.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9).

Blum, E. "Kompositionelle Knoten am Übergang von Josua zu Richter: Ein Entflechtungsvorschalg." In *Deuteronomy and Deuteronomic Literature*. Ed. M. Vervenne and J. Lust. VETL. 133. LeuvenL Peeters, 1997)", 182-212.

Boling, R.G. "Respons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1976), 47-52.

Boling, R.G. *Judges* (New York: Doubleday, 1975).

Brettler, Marc Z., "Jud. 1,1-2:10: From Appendix to Prologue."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1(1989), 433-435.

Campbell, A. F. *Joshua to Chronicles: An Introdu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4),

Cherryl A. Brown. Judges. Pp. Harris, J.G., Brown, C.A. and Moore, M.S. *Joshua,*

www.kci.go.kr

Judges, Ruth.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0), 121-289.

Childs, B. S. "A Study of the Formula 'Until This Da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2(1963), 279-292.

Cundall, A.E./Morris, L. *Judges and Ru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68).

Dersey, D.A.,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Even-Shoshan, A., *Concordance* (The Latin Gate, 1840). (Hebrew)

Finkelstein, I., Bunimovitz, S., Ledermann, Z. and Brandle, B., *Shiloh: The Archaeology of a Biblical Site*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1993).

Kaufmann, Y. *The Biblical Account of the Conquest of Canaan* (Jerusalem: Magness, 1985).

Long, B.O. *2 Kings*. FOTL 10(Grand Rapids: Eerdmans, 1991).

Mazar, A. *Timnah (Tel Batash) I: Stratigraphy and Architectur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7).

Mazar, A./Panitz-Cohen, N. *Timnah (Tel Batash) II: The Finds From the First Millennium BC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1).

Mullen, E. Theodore., "Judges 1:1-36: The Deuteronomistic Reintroduction of the Book of Judges", *Havard Theological Review* 77/1(1984), 33-54.

O`Connell, R.H.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Leiden: E.J. Brill, 1996).

O'Doherty, Eamonn. "Literary problem of Judges 1:1-3:6" *Catholic Biblical Quarterly* 18/1(1956), 1-7.

Richter, W. *Tradi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m Richterbuch* (BBB 18. Bonn: Hanstein, 1966).

Soggin, J.A. *Judges: A Commentary* (Philadelp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Stager, L.E. "Forging An Identity", M.D. Coogan, ed. *The Oxford History of the Biblical World*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23-175.

www.kci.go.kr

Stevenson, Jeffery S., "Judah's successes and failures in holy war: an exegesis of Judges 1:1-20." *Restoration Quarterly* 44/1(2002), 43-54.

Sweeney, M.A. "Davidic Polemics in the Book of Judges." *Vetus Testamentum* 47(1997), 517-529.

Weinfeld, M. "Judges 1:1-2:5: the Conques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House of Judah", A.G. Auld., ed. *Understanding poets and prophets: essays in honour of George Wishart Anderson* (Sheffield, 1993), 388-400.

Weinfeld, M.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 (Oxford, 1972).

Younger, K.L. Jr. "The Configuring of Judicial Preliminaries: Judges 1:1-2:5 and Its Dependence on Joshua."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68(1995), 75-92.

Younger, K.L. Jr. "Judges 1 in Its Near Eastern Literary Context.", A.R. Millard, J.K. Hoffmeier, and A.D. Baker, ed., *Faith, Tradition, History: Essays on Old Testament Historiography in Its Near Eastern Contex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4), 207-227.

Younger, K.L., Jr. *Ancient Conquest Accounts: A Study in Ancient Near Eastern and Biblical History Writing.*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 9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0).

www.kci.go.kr

검색어

사사기
삿 1:1-2
서두 양식
신명기 역사서
유다

An Exegetical Study for Judges 1:1-2

Hoo-Goo Kang

Seoul Jangsin University

The book of Judges plays a role in connecting the book of Joshua with the book of Samuel. Its main body consists of the stories of twelve judges (3:7-16:30) bracketed by two introductions (1:1-2:5; 2:6-3:6) and two endings (17:1-18:31; 19:1-21:25).

This paper deals with the first two passages of the first introduction analyzed in linguistic, literary, and theological points of view. In addition, the author tried to interpret them in terms of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book as well as their historical background. In doing so,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opening phrase "וַיְהִי אַחֲרֵי מוֹת" is probably a typical introductory form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appeared in Josh. 1:1; Judg. 1:1; and 2 Sam. 1:1; (2) the question of the descendants of

www.kci.go.kr

Israel "Who shall go up for us against the Canaanites first, to fight against them?" and the following answer of Yahweh "Judah shall go up" indicate the shift in leadership to the tribe of Judah after the death of Joshua; (3) the first introduction to which the text belongs (1:1-2:5) is connected with the second ending (chs. 19-21), both added in the last phase of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Judges (Stratum 1); (4) exegesis of the text and analysis of cities mentioned in the book of Judges, its arrangement of twelve judges, and a certain phrase, "From Dan to Beersheba," lead to the assumption that the book alludes to the expectation of a king from the tribe of Judah, i.e. David.

www.kci.go.kr

Keywords

Judges

Jud. 1:1-2

introductory phrase

deuteronomistic history

Judah

www.kci.go.kr